

광주시·전남도, 8년 만에 광주전남연구원 '재분리' 공식화

시·도, 20일 광주전남연구원 이사회에 '분리 의견' 제출

미래비전·분야별 발전 전략 제시 전문기관으로 육성 계획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 8년 만에 결국 재분리 수순을 밟게 됐다.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21일 (재)광주전남연구원의 분리를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앞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20일 광주전남연구원 이사회에 '광주전남연구원의 발전적 분리' 의견을 제출했다.

시·도는 연구원의 발전적 분리를 통해 미래비전과 분야별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전문기관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는 취지다.

의견 제출에 앞서 지난 16일 광주시와 전남도는 각각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등 운영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기초발제자로 나선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대도시 행정 광주와 중소도시·농어촌 중심 전남의 정책과제 동시수

행에 한계가 있다. 대도시 광주 여건에 맞는 도시 문제에 특화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특광역시 중 독립연구원이 없는 곳은 광주가 유일하다"며 연구원을 분리하자는 데 힘을 실었다.

광주시는 시·도 이해 관계가 상충되는 정책에 대한 소신 있는 연구,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 된 연구 등 연구원 분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 연구인력·출연금은 타 광역시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보완하는 한편 지역 연구기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공청회 당시 전남도 기초발제자로 나선 장현범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015년 통합이후 연구원 1인당 연평균 연구실적이 통합 전에 비해 11%가 감소하고 구 전남연구원과 비교

할 경우 21.1%가 감소했으며 시도 요구과제는 29%가 증가한 반면 연구원 자체발급과제는 41%가 감소해 독립적인 연구기능이 오히려 약화됐다"며 사실상 분리를 시사했다.

장현범 실장은 21일 "전남 전남도 누리집에 공고한 '주민공청회 개최 결과'에서 전남도 입장으로 명시한 '지역특화 연구방안 마련시 검토 예정'이라는 부분은 사실상 연구원 분리를 의미하고, 강하고 효율적인 독립(전남)연구원으로 키우는 방안이 담길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연구원의 분리 여부를 묻기 위해 임시이사회 소집 공고를 냈다.

광주전남연구원이 분리하려면 19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후 시·도의회가 함께 광주전남연구원 설립·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전남도는 이사회에서 연구원 분리가 최종 확정되면 '실무협의회·TF(전담기구)운영(3~7월)→근거조례 제정(3~5월)→전남연구원 이사회(5월)→개원 준비(5~7월)→개원식(7월)'으로 이어지는 순서에 따라 독립 연구원으로 재



나주혁신도시 '광주전남연구원' 전경.

개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1991년 개원한 전남발전연구원은 1995년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2007년 분리됐다가 2015년 다시 통합했다. 조직은

1본부·2총괄지원연구원·7실·1단·1센터로 구성됐다. 연구직 37명·사무직 9명·연구지원직 19명 등 65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슬비기자

전남도-시군 전국체전 성공 개최 협력 강화키로

시군 준비상황 보고회...숙박·안전·교통·문화행사 등 논의



전남도는 최근 도청 서재필실에서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성공 개최를 위한 시군 준비상황보고회를 열어 숙박, 안전, 교통, 환경정비, 문화행사 등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선 2008년 여수 개최 이후 15년 만에 전남에서 다시 열리는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체전 종목별 경기장 분산 개최되는 22개시군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지난해 10

월 각 실국, 사업본부, 도교육청, 도경찰청, 도체육회, 도장애인체육회 등과 1차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보고회는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22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체전기획단장의 양대 체전 총괄보고에 이어 시군별 체전 주요 준비상황, 향후 실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히 숙박, 안전, 성화 봉송 지원, 교통대책, 환경 정비, 체전 연계 문화행사 등 실질적 체전 준비를 위한 시군의 분야별 과제를 다뤘다.

또한 도민 자율참여를 통한 선수단 손님맞이 확대 분위기 조성, 성공 기원 사전 범용 활동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전남도는 대회를 앞두고 참가 선수가 최상의 경기력을 갖출 수 있는 체육시설 기반 확충을 위해 주경기장인 목포종합경기장 건립과 각종 체전경기장 개·보수를 하고 있다. 목포종합경기장은 공정률 83%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오는 7월까지 시설 신축 5개소, 개보수 51개소 등 총 56개소의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영산강환경청, 오늘 세계 물의 날 기념식 개최

'함께 만드는 변화, 새로운 기회의 물결' 주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오는 22일 '함께 만드는 변화, 새로운 기회의 물결'을 주제로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영산강환경청은 올해 기념식에서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변화 대응을 강조한다. 기념식은 오후 2시 영산강환경청 대강당에서 열린다. 광주시·전남도·기상청·영산강홍수통제소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다. 서선욱기자

기념식은 국민의례, 표창수여, 기념사, 축사, 초청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유관기관 직원 120여 명은 기념식을 마친 뒤 광주 북구 시민의 숲과 영산강변 정화 활동을 펼친다.

유엔(UN)은 지난 1992년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했다. 서선욱기자

포스코, 정비전문 자회사 설립 추진...설비경쟁력 및 안전 강화

포스코가 철강 경쟁력의 토대인 설비 강건화를 위해 정비전문 자회사 설립을 추진한다.

현재는 포스코가 제철소 설비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관련 업무에 대해 계약을 맺은 협력사들이 정비작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형화된 정비전문 자회사가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정비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최근 철강산업은 스마트팩토리 구축, 저탄소 제철공정 도입 등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포스코는 철강 제조의 근간이 되는 설비 경쟁력 강화 및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지난해 9월에 발생한 냉철 범람사고로 큰 침수 피해를 입었던 포항제철소 설비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인 정비체제 구축과 정비기술력 향상에 대한 중요성과 시급성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글로벌 주요 철강사들도 설비장에 없이 안정적으로 조업하기 위해 정비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설비 엔지니어링 기술력, 설비관리 역량 강화 등 정비 전문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포스코는 정비자회사들이 제철소 대형 설비에 대한 정비 기술력을 높여 설비 수명 연장, 성능개선 등 종합 정비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향후 포스코 해외 사업장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이

다. 또한, 정비자회사에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갖춰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정비자회사는 안전 인 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직원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도 실시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6월경 포항과 광양 지역에 제철 공정단위별로 복수의 기계·전기 분야 정비자회사를 설립할 예정으로, 기존 협력사 중에 희망하는 경우 포스코 정비자회사 설립에 참여할 수 있다. 자회사 직원은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모집하고 현재 해당 정비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협력사 직원의 경우 포스코 정비자회사 직원으로 우선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직원들에게는 성장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포스코인재창조원 등 포스코그룹이 보유한 다양한 교육시설과 커리큘럼을 활용한 정비기술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해를 넘어서 재인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보험료부담액	급여비
5분위 고소득층	240,833원	1.1배
4분위	125,531원	1.7배
3분위	79,147원	2.1배
2분위	48,103원	2.7배
1분위 저소득층	26,697원	5.3배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국민건강보험 Corporation 국민건강보험 157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